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81 2020. 12. 18 Fri

발행인 이상인 주간 임태균 간사 조선희 편집장 김정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351, 8276 http://www.sungkyul.edu



3 보도
'꿈꾸는 놀이터',
제40회 합초롱제



6 사회
바이든의 승리,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7 사회
침묵하지 마세요,
힘껏 외치세요.



11 문화
슬기로운
문화생활
-영화, 드라마

종 강 사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총장 서리 이상인

끝이 안 보이는 바이러스와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결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하며 문안드립니다. 2학기에는 자유롭게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며 친구들도 반갑게 만날 것을 모두가 바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2.5단계로 격상되었고, 계속되는 확진자의 증가로 3단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록될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학교, 즉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오랫동안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학습터', 'Zoom' 또는 'Google-Meet' 등 생소한 시스템이 강의실에서 행해지던 수업의 대부분을 대신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생각했던 교육 환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본부의 여러 기관 및 부설(연구)센터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의 장점인 강의의 집중도, 시험 및 효율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수준이던 온라인 강의들은 교수님과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에 최적화된 평가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면서 학생의 역량 판단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교수님들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면 수업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던 운동이나 예체능 수업 역시 온라인 영상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강의의 방법을 흔들고, 사람들과의 접촉기회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그동안 소홀했던 내 주변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배워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이 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을 분간 할 수 없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곧 동이 트고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여러분은 젊음과 지혜, 용기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교수님들 혹은 교내 여러 기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시작도 못하고 대학생활을 지나고 있을 학우들과 코로나 시대의 졸업 후 취업과 진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며 준비했을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당면했습니다. 거리두기의 불편함을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성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발판삼아 미래의 나를 설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분명히 지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그래서 모두 교정에서 반갑게 만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는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남은 2020년, 은혜롭고 축복받는 시간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새해, 2021년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성결대학교 총장 서리 이상인

미리보기

'성장을 꿈꾸다. 결실을 거두다' 2020 성결 FAIR, 성황리 개최



<2면에 계속>

2021학년도 총선거 온라인으로 실시



<8면에 계속>

책의 변천사



<12면에 계속>

‘성장을 꿈꾸다. 결실을 거두다’ 2020 성결 FAIR, 성황리 개최



지난 11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3일간 ‘성장을 꿈꾸다. 결실을 거두다’라는 슬로건으로 ‘2020 성결 Fair’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교육혁신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행사를 진행했다. 오프라인 행사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양일간 사전신청을 통해 본교 학술정보관 1층에서 이루어졌으며,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13일(금)까지 온라인 행사가 동반됐다. 이번 행사는 △직무 △비교과 △이벤트 △운영으로 구역을 나눠 이뤄졌으며, 교내 비교과를 소개하는 ‘비교과 FAIR’, 직무를 소개하는 ‘JOB FAIR’, 학생 성공 사례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 FAIR’로 구성됐다. 또한 2020년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과 인증제 포트폴리오 대회 시상식 및 발표회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오프라인 FAIR에는 231명(1,231건)이, 온라인 FAIR에는 564명(2,474건)의 학우들이 참가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스를 참여한 후 도장을 모으면 커피쿠폰/ USB를 선

착순으로 나눠줬으며,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트콘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FAIR에 참여한 학우들에게는 방문 부스 충족 시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SE, 구글 Nest Audio, 삼성 무선 충전기, 치킨 및 커피 기프트콘을 지급했다.

교육혁신지원센터 한희영 과장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 위주에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비교과에 대해 잘 알게 되는 시간을 넘어서 자기 직무를 구체화하고 더 넓은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손수빈(도디 20) 학우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이 참여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성결 페어에 참가하고 보니 몰랐던 학교 내 기관, 부서, 활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자주 오지 못하는 신입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글/사진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2020 ICT 융합 실감콘텐츠 랩’ 운영

본교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 ICT 융합 실감콘텐츠 랩’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본교 XR센터와 교내 인준연구소인 융합예술과학연구소와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바이노럴(Binaural) 기술이 적용된 실감 음향과 게임엔진으로 구현된 3D 디지털 영상 가상무대를 제작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에 최적화된 온택트 공연을 제시한다.

입체음향과 3D 디지털 영상 제작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세미나는 본교(XR센터, 돌비 애트모스 스튜디오)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문화융합센터)의 첨단 보유 장비를 활용해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며, 랩 구성원의 협업과 교육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XR센터 센터장 유현식 교수는 “성결대학교와 ICT문화융합센터가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콘텐츠 제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가 양성과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문화예술분야 실감콘텐츠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컴퓨터공학과 (주)구디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본교 컴퓨터공학과는 지난 11월 19일(목) IT 교육기관 (주)구디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SW 개발자 신규 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학과 발전 기금을 기부받았다. 이번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산업체간 연구개발, 기술자문 등 협력체제 확립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및 산업체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 △인력 및 기술산업 정보 등의 상호제공 △인적 자원의 교류 및 교육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등에 관해 상호협력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노예림(컴공 16) 학우는 “산학협력을 통해 배움의 기회가 더 넓어진 것 같다”고 말하며 본교 학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구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디아카데미는 서울시 금천구 소재의 IT 교육기관으로서 2016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직업 훈련을 진행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2018년부터 3년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주)디에스티인터내셔널, 본교에 장학금 전달

지난 11월 (주)디에스티인터내셔널(이하 DSTI) 김형태 대표는 본교에 장학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DSTI는 본교와 2017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IT 신기술 제안과 서비스 이용 △현장실습 지원 △그 이외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매년 본교 공과대학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교 현장실습생을 DSTI에 파견해 올해로 4년째 총 14명의 학우들에게 엔지니어들의 멘토링을 통한 IT 최신 기술을 접하는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줬다.

이에 DSTI 김형태 대표는 “장학금 및 현장실습을 통해 미래의 IT 인력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본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DSTI는 2000년 8월 설립 이후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앞선 기술로 주요 산업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시스템 통합 △시스템 관리 △정보보호 등 IT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본교 동아시아물류학부, 멘토·티 행사 및 특별인재상 수여



지난 11월 20일(금) 2시 본교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에서 동아시아물류학부 멘토·티 행사가 진행됐다. 본 행사는 동아시아물류학부 소속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선배와의 만남 ▲경품 추첨 ▲특별인재상 시상으로 마무리됐다.

이밖에도 특별인재상에는 특별히 동아시아물류학부 20학년 학우들인 김예원, 서다빈, 최은진 외 5명이 수상했으며, 해당 행사는 동원산업, 로전택배 및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참석한 문경준(동물 20)학우는 “입학 후 참여한 첫 대면 행사인 만큼 조금 어색했지만 모든 만남이 감사했다”고 말하며, 특히 선배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너나들이 학생회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동아시아물류학부는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두번째로 가진 이번 대면행사를 통해 학우들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생활을 든든하게 해 줄 활력소를 제공해줬다.

글/사진 - 김가윤 기자 rt0120@sungkyul.ac.kr

‘꿈꾸는 놀이터’, 제40회 함초롬제



지난 11월 4일(수) 9시 30분 본교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에서 제40회 함초롬제 개최식이 열렸다. 개최식은 기도 및 내빈 소개와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상인 총장서리는 “지난 3년 동안의 결실을 이렇게 뜻깊게 맞이하는 순간을 보니 기쁘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조금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더 귀한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유아교육과 학과장 배지현 교수는 “성결대학교 예비 유아교사들이 이번 함초롬제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 나가는 행복한 놀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놀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수업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함초롬제가 유아들이 원하고 꿈꾸는 놀이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개최식을 시작으로 막을 연 함초롬제는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11월 4일

(수)부터 5일(목)까지 양일간 학술정보관 6층에서 교구 전시 및 동극이 이뤄졌으며, 6일(금)은 모든 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박은하(유교 19) 학우는 “선배님들의 함초롬제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년 지역사회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들을 학교로 초대해 교구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번 함초롬제의 교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아방문이 불가함에 따라 대면을 최소화하는 교구 대여로 변경해 진행했다. 이에 본교 유아교육과 학과장 배지현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교육적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진 전문적 유아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사진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새로운 시작, 공대 졸업작품전시회

지난 11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본교 공과대학 졸업 작품 전시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컴퓨터공학과 22팀 △정보통신공학과 17팀 △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부 15팀으로 총 54팀이 참가했다. 또한 우수 작품 설문 참여도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순위에 따라 상품과 수업점수 반영의 혜택을 제공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례 없는 온라인 졸업작품 전시회에 대해 작품을 전시한 김서윤(컴공 16) 학우는 “새로운면서도 아쉽다”며 “기존 전시회는 작품을 직접 시연해보는 동시에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졸업작품 전시회를 감상한 정우민(정통 20) 학우는 “오히려 공과대학 건물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전시회를 구경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히며 훗날 참가해야 될 졸업작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4학년 학우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판로를 열어줬으며, 이론과 기술을 접목한 작품들은 많은 학우들에게 또 다른 자극제가 됐다. 2021학년도 졸업생 모두에게 오늘의 경험이 미래에 큰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



글 - 노예림 기자 sis04026@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제30회 음악학부 졸업연주회



지난 11월 16일(월)부터 26일(목)까지 본교 기념관 2층 흥대실홀에서 ‘제30회 음악학부 졸업연주회’가 열렸다. ▲피아노 16일, 17일, 19일 ▲성악 24일, 26일로 약 10일 동안 진행된 졸업연주회는 아름다운 선율과 학우들의 박수로 막을 내렸다.

졸업연주회에 참석한 임해령(음악 18) 학우는 “졸업을 앞두고 심란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지만 선배들이 준비한 연주를 통해 위로와 응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졸업하는 선배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크게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졸업연주회를 감상한 김정원(관광 18) 학우는 “멜로디의 선율과 힘 있는 피아노의 울림으로 연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이번 졸업연주회를 통해 값진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완성된 졸업연주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2021학년도 졸업생들의 시작이 악보 속 멜로디처럼 아름답게 흘러가길 응원한다.

글/사진 - 김가윤 기자 rt0120@sungkyul.ac.kr

성 결 만 평

그림 - 김민진 수습기자 zzzzzzzzzin@sungkyul.ac.kr
정우민 수습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회복지학과

“당신의 학과에 참견해드립니다!” 각 학과만의 신비롭고 재밌는, 궁금한 점을 낱알이 파헤쳐 보는 시간. 본교의 학과를 타인의 시점이 아닌 학과 본연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전지적 학과 시점. 이번 호에선 사회복지학과에 참견해보려 한다.

#부학생회장이 말하는 사회복지학과는?

최경미(사복 18) 학우 사회복지학과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과입니다.

#학과생이 말하는 사회복지학과는

<p>허지희(사복 15) 학우</p> <p>사회복지사는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해 줍니다.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금도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p>	<p>박유진(사복 18) 학우</p> <p>사회복지학과는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욕구를 알맞은 방법으로 해결해 사람들을 돕는 전문적인 직무입니다. 이를 위해 고학년 때는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회복지학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p>	<p>성예지(사복 19) 학우</p> <p>사회복지학과는 한 학년 당 백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미술, 춤, 운동과 같은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현장 실무에 대해 알려주시며 학생들과 여러 교류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 역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등 학구열이 높은 편입니다.</p>
--	--	--

#궁금한 건 다 물어봐!

Q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사회복지학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능력, 사랑과 원만한 품성을 겸비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합니다. 배우는 과정은 사회학의 이론과 지식을 사회복지실천에 접목시켜 인간의 욕구 및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무능력을 지닌 전문 사회복지적인 교육을 양성합니다. 사회복지 교과목은 사회복지 전공에 근거한 다양한 이론과 실천영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욕구와 관련해 이에 부합한 새로운 교과과정 개설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천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복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무능력을 지닌 전문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졸업 후 취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진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병원)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보험 관련 공단 ▲기업의 사회공헌팀 및 사회복지재단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취득하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사회복지현장에서 엑셀로 정리하는 문서작업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스 자격증이나, 포토샵, 영상 프로그램 등처럼 홍보에 있어서 자신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Q 사회복지학과 소모임은 어떤 게 있나요?

사회복지학과는 ▲무언 ▲쓰시오▲사랑지기▲소시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무언’은 은 촌츨 무, 말쑹 언을 사용한 촌미 언어라는 뜻으로 수어를 아름다운 촌사위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어 소모임입니다. ‘쓰시오’는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극을 사이코드라마 기법으로 꾸며내는 소모임입니다. ‘사랑지기’는 연계된 기관과 동문 선배님들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모임입니다. ‘소시지’는 작은 세상의 지혜를 줄인 말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으로 표현하는 소모임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소모임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 역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신입생 친구

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Q 봉사 실습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는 현재 2년째 사회봉사센터 안다미로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안양천 환경정화 봉사, 농촌봉사, 벽화봉사, 노인 주·야간보호 센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한세대학교와 연합해 진행한 서산 농촌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종 면허가 있어 농기구를 운전해 콩을 옮기는 작업을 했을 때 다들 신기해하면서 쳐다보아서 뿌듯함을 느꼈고, 농촌 일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봉사를 계기로 체험해서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Q 사회복지학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세요!

학생의 본분인 학업도 중요하지만 대학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및 학과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모두 참석해 즐거운 대학생활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p>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며 함께함의 가치를 지켜내는 사회복지학과 - 허지희(사복 15) 학우</p> <p>사람의 삶을 다루는 가장 인간적인 학과 - 박유진(사복 18) 학우</p>	<p>활기차게 교육을 배우며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사회복지학과 - 최경미(사복 18) 학우</p> <p>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다재다능 해피 바이러스 학과 - 성예지(사복 19) 학우</p> <p>글 - 문예빈 수습기자 cagi77@sungkyul.ac.kr</p>
---	--

늘면? 뭐하니? 리포트 메이크업

똑같은 주제로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동기는 A+를 받고 나는 C0를 받았다면? 질 좋은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대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걸까. 쓸 때 마다 어려운 리포트 작성하기, 리포트 메이크업 특강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 많은 대학생들은 리포트를 쓴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중 일부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관에 빠지곤 한다. 필자 역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노트북 앞에 앉아 몇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적이 많다.

리포트를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 장한별 강사는 메이크업의 과정과 리포트 쓰는 방법은 평행이론이라고 설명하며 글 쓰는 방법을 메이크업에 비유해 ▲주제파악 ▲자료수집 ▲내용구성 ▲내용편집 ▲최종점검 5단계로 나눴다.

주제는 리포트를 쓴 의도와 목적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다. 주제를 정하는 방법은 메이크업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정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큰 주제와 관련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뒤 브레인스토밍이나 마

인드맵을 활용해 세분화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주제로 리포트를 작성한다면 이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수집을 할 때 무한 자료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며 다양한 논문과 책을 활용해 깊이 있는 검증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더라도 모든 화장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는 없다. 때문에 내용구성을 할 때는 이에 유의해 불필요한 것은 제외해야 한다. 내용 편집은 메이크업을 할 때 전체적인 톤을 맞추는 것처럼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고, 글씨 크기를 맞추는 등 전체적인 서식을 갖춰야 한다. 최종점검 단계는 화장의 마무리 단계로 제출 전에 오타 자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 번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학기에 두 번의 리포트 과제가 있었다. 첫 번째 리포

트 과제는 강의를 듣기 전 제출한 리포트였다.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자료조사를 시작했고 내가 찾은 자료를 리포트 안에 모두 넣기 위해 주제에서 벗어난 자료도 넣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자료조사를 할 때 단순히 많은 양의 자료만을 찾기보다는 필요 없는 내용은 배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리포트의 결론을 작성할 때는 강조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재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사점이 무엇인지 추가함으로써 균형 잡힌 악어형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한편 리포트 메이크업은 12월 31일까지 수강할 수 있으니 완벽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싶은 학우들은 서둘러 수강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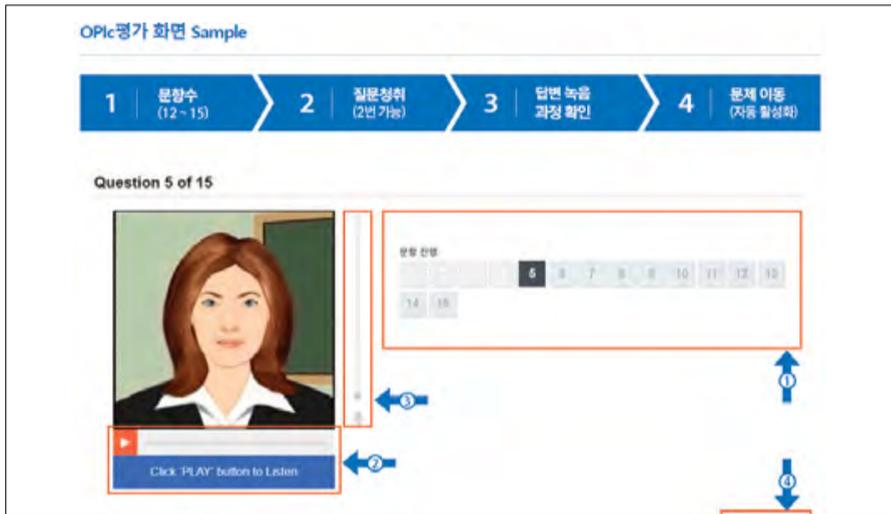
글 - 문예빈 수습기자 cagi77@sungkyul.ac.kr

어학 자격증 오픽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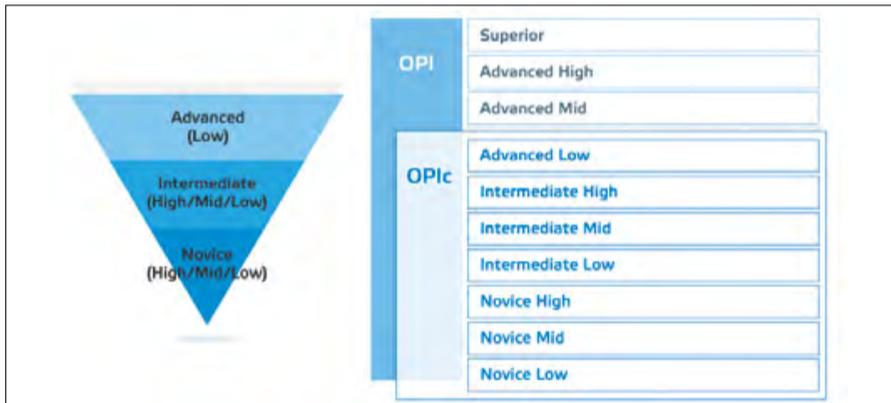
취준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어학자격증. 최근 기업에선 듣기, 읽기 능력 시험인 토익 점수보다 취업 후에도 기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오픽 점수를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또한 오픽은 토익에 비해 단기간에 취득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어학 자격증이다. 이번 취업면에선 오픽에 대한 정보와 다른 어학 자격증과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OPIc은 무엇일까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 - Computer)은 ACTFL에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에 이르기까지 총 7개의 언어를 외국어 말하기로 평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본질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또한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실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언어 평가도구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실시돼 현재 약 1,700여 개의 기업 및 기관에서 채용과 인사고과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OPIc 시험개요



시험은 60분 동안 진행되며 Orientation 20분, 본시험 40분으로 진행된다. Orientation은 시험 난이도 및 평가문항 선정을 위한 사전 설문, 자기평가가 이뤄지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능 점검을 실시한다. 시험은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고 ▲직업 ▲여가생활 ▲취미 ▲관심사 등에 대한 주제로 12~15문항이 출제되며 문항별 제한 시간은 따로 없다. 주요 평가 기준은 ▲Global Tasks/Functions ▲Context/Content ▲Accuracy/Comprehensibility ▲Text/Type으로 4개 영역으로 평가된다. 답변을 녹음해 제출하면 ACTFL 공인 평가자에게 전달돼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Speaking'말하기 평가 기준에 따라 NL(Novice Low)부터 AL(Advanced Low)까지의 등급을 부여받는다. 시험 결과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로 신속하게 통보해 준다.

#토익, 토스, 오픽,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어학자격증에는 ▲토익(TOEIC) ▲토스(TOEIC SPEAKING) ▲오픽(OPIc) ▲토플(TOEFL) ▲텡스(TEPS)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ETS의 토익, 토스와 ACTFL의 오픽이 대표적인 어학 자격증이다. 토익은 기업에서 범용적으로 성적을 사용할 수 있어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지만, 최근 기업에서 말하기 능력을 선호함에 따라 요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토스, 오픽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고득점을 취득하기 힘들다. 토스와 오픽은 말하기 시험이라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토스는 각 문항별로 제한 시간이 있지만 오픽은 전체 시험 제한 시간만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오픽은 일상생활 관련 주제로 출제되며 각종 키워드만 준비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답변하면 되지만, 토스는 틀에 맞춰져 문장을 암기해 답변해야 한다.

#기업이 오픽을 선호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취업 시 듣기, 읽기 능력 시험인 토익을 중시했지만 취업 후에도 실제 활용 가능한 오픽과 같은 어학 말하기 자격증이 점차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토익 점수 대신 오픽, 토스 점수만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한화 ▲LG ▲두산 ▲CJ ▲포스코 등 오픽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과 다른 1,700여 개의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거에는 토익 성적만이 기준이 되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오픽, 토스 같은 말하기 성적을 요구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오픽은 다른 어학 자격증에 비해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고 토익 같은 듣기, 읽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취업 자격증을 취득 준비 중이라면 오픽에 한번 도전해보기 바란다.

글 - 임종엽 수습기자 elliot558@sungkyul.ac.kr

사진- ACTFL, 오픽

[참조] ACTFL 오픽



공기업, 대기업 등등 사람마다 가고 싶은 기업과 원하는 직종은 모두 다르다. 다양한 방식의 취업 시장에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NCS, 기업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업무 적성,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는 인적성 검사 두 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NCS란 무엇일까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

화한 것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다. NCS를 도입한 공기업은 스펙이 아닌 면접과 필기를 통해 지원자를 평가한다. 이때 10대 직업기초능력 중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능력을 시험하게 된다. NCS 채용의 가장 큰 장점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서 차별적인 평가요소를 제거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성 검사란 무엇일까

인적성 검사란 인성, 적성 검사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업무를 수행할 때 겪게 되는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인성검사에선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 직무와의 적합도를 제시해 주며 적성 검사에선 작업을 하기 위한 능력, 적응력을 평가한다. 주로 ▲직무 기초 ▲업무관리 ▲관계 관리 ▲자기관리 ▲조직 적합도 ▲직무적합도 등에 대해 결과가 나오게 되며 기업마다 다른 검사 형태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언어능력 ▲수리영역 ▲추리영역 등에 대해서 출제되며 기업마다 추가로 공간지각 능력, 상식 능력 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된다.

#NCS와 인적성 검사의 차이점

NCS와 인적성 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 기업의 차이이다. NCS는 대부분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정한 표준검사이다. 반면에 인적성 검사는 각 기업별로 자기 회사에 맞는 기준을 정해 만든 검사다. ▲삼성의 GSAT ▲현대

의 HMAT ▲CJ의 CAT CJAT 등 기업별로 다른 검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NCS는 기초직업역량과 전공에 대한 시험을 진행해 업무에 대해 주로 검사하는 반면 인적성 검사는 수리영역, 언어, 추리능력 등 기업의 특정 평가 의도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된다.

#NCS와 인적성 검사의 공통점

두 시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시험 목적이 같다. 모두 각 기업에 맞는 인재를 선별하고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난이도 또한 비교적 높다고 평가된다. 또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제출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HMAT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5~20문항에 25~30분이 주어지게 되므로 문제당 1분을 조금 넘기는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NCS 검사와 인적성 검사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들은 자신의 스펙과 상관없이 전문성만 높다면 과거에 비해 NCS를 통해 더욱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마다 통일된 자기소개서와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기업에 걸맞은 인적성 검사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졌다. 날이 갈수록 힘든 취업 시장에서 위와 같은 시험을 잘 준비해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

글 - 임종엽 수습기자 elliot558@sungkyul.ac.kr

[참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바이든의 승리,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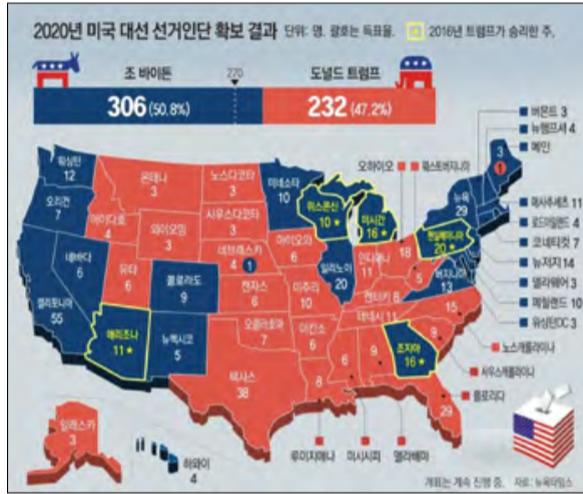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에 치러진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을 훌쩍 넘긴 306명을 확보한 바이든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미국 대선. 이번 사회면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하던 때와는 달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28년만의 패배

28년 동안 미국의 대선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인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연임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보통 현직 대통령이 재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46대 대선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재임에 실패하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됐다. 이는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미국에 지친 유권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고, 결국 이번 선거는 트럼프와 반 트럼프의 대결 구도였다는 해석도 다수 존재했다. 또 예측하지 못했던 COVID-19로 인한 외부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였지만, 미숙한 초기 대응은 미 전역을 마비시켰고, 18만 명이 넘는 하루 신규 확진자를 양산하며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결국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잃으며 대선에서 패배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연설에서 “나는



▲2020년 미국 대선 선거인단 확보 결과 <출처_동아일보>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레드 스테이트(Red State·공화당 지지 주)와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민주당 지지 주)가 아닌 미국(United States)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통합과 안정’을 이번 대선의 슬로건으로 잡으며 경제 성장을 주된 목표로 삼던 트럼프와는 다르게 국제 안정을 택했다. 그렇게 바이든은 에볼라 대응 조정관을 지낸 론 클레인을 비서실장에 내정하게 된다. 이는 COVID-19의 진화에 대해 먼저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전망된다. 또한 캠프 시절부터 미 역사상 가장 다양한 내각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지시간인 17일(화) 유색인종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를 백악관 핵심 참모진으로 등용하며 ‘다양한 내각의 모양새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내각이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트럼프리즘? 미국의 새로운 4년...

바이든의 당선으로 가장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은 의료보험이다. 같은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펼쳤던 일명 ‘오바마 케어’를 다시 소생시키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보험 개혁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보험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었다. 45대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며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조항이 삭제됐지만 바이든의 당선을 통해 다시 부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단 의료보험뿐만 아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탈퇴 ▲반이민 행정명령 ▲파리기후협정 탈퇴 ▲이란 핵 합의 준수 불인정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또한 복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3년 동안 바꾼 것들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반대로 하기)’의 양상을 띠고 할 수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8일 바이든 인수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으로 대응할 과제로 ▲COVID-19 ▲경제 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기후 변화가 날조된 것이라 주장한 트럼프의 주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복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취임 첫날에 불법 이민자 약 1천10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폐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바이든은 화합과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불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 하는 바이든 <출처_연합뉴스>

안정한 국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달라질까?



▲조 바이든 당선인 부통령 당시 GP 방문 <출처_연합뉴스>

바이든 당선에 영향을 받는 건 미국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행정부와 의회 간 경기부양책 논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COVID-19로 침체된 미국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무

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분석이다. 미국 경기 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 정책을 펼칠 경우 우리 수출 환경에는 ▲과도한 무역제한 조치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 증가 기대 ▲원유 수요 증가로 유가상승 시 수출 단가 회복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미중 분쟁이 확대되고 보호 무역이 지속된다면 ▲달러 약세로 원화 절상 압박 ▲이란과의 외교 대화 재개로 인한 유가 하락 요인 작용 ▲미중 분쟁 영역 확대 ▲보호무역 지속 및 탄소 조정세 도입 ▲미국산 구매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존재한다.

이 밖에도 주한 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얘기도 빠를 수 없다. 외교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7

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백악관의 지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 미국 국방장관은 “올해 말까지 성취할 10가지 목표 중 하나로 각각의 전투 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유럽 사령부 등과 함께 한국이 들어간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몇 개월 내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변화된 국방 전략을 분석하자면 미국 군 당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특정한 곳에만 주둔하는 것을 벗어나 배치의 유동성 및 유연성을 높이는 새 전략을 수립 및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에서 “현 상태의 주한미군 구조는 미중 군사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인도 태평양의 군대 운용 능력을 제한시킨다”며 “향후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인 변화에 대해 한국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축하와 기대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비단 정책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혐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종, 정치, 성별적으로 갈라져 있다. 통합을 핵심으로 생각한 조 바이든의 당선은 어쩌면 전 세계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붙여주는 접착제가 될 수 있다. 출범도 전에 시동이 걸린 화합의 길을 통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글 - 정우민 수습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동아일보

[참조] 이데일리, 뉴스핌, 연합뉴스,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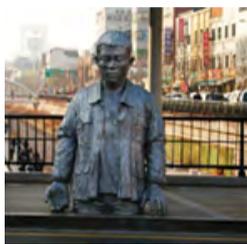
시리즈 기사 #3

침묵하지 마세요, 힘껏 외치세요.

저번 호에서 다뤘듯,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국제 인권법을 발의하며,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이번 시리즈 기사에서는 인권을 위해 침묵하지 않고 힘껏 외친 이들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역시 그들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침묵하는 이들에게 권리란 없다.

2020년 11월 13일, 이날은 노동인권을 위해 힘쓴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던 날이었다. 인권 보장을 위해 온몸 바쳐 자신의 목소리를 알린 전태일 열사, 그의 목소리를 따라 가보자.



전태일 열사는 6·25 전쟁 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초등학교 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동시에 일을 해야만 했다. 당시 전태일을 포함한 많은 노동자는 햇볕 조차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힘든 노동에 비해 턱없이 일당은 부족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위를 무마시키려고 하자 전태일 열사는 분신을 통해 자신의 뜻을 더 널리 알렸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시위에 참여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며 그들을 보호하는 기준을 점차 지켜나가게 됐다. 오늘날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누군가의 용기 있는 발언과 송고한 희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개인의 작은 목소리가 다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외친 전태일 열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때다.

#티끌 모아 태산

2020년인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전태일 열사가 될 수 있

다. 물론 혼자만의 힘은 미약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작은 힘들이 모여 선한 영향을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모토로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를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6월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 제목을 기억하는가? 이 청원 글은 10살 여아에게 목졸까지 채우며 학대한 사건과 앞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었다. 이 청원인은 “학대 정황이 있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아이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해야 이슈가 된다”고 적으며 “법과 시스템은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처벌도 약하고 아이를 보호할 기관은 서로 미루거나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이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 6월 12일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취약 연령 아동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그저 한 사람의 청원 글에서 시작됐지만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어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낸 작은 힘들이 모여 또 다른 영웅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앞선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 함께 한다면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야기를 사례로 들었다면, 국외에서는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말랄라 유사프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말랄라 유사프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점령당한 일상, 여성 인권에 대해 영국 BBC 방송 블로그에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 소녀이다. 익명으로 블로그에 글을 썼음에도 탈레반에게 존재가 알려져 머리와 어깨에 총상을 입어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냈다. 결국 그녀의 목소리는 영국 블로그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닿았고 사람들은 ‘나는 말랄라’를 외치며 인권 보호를 주장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UN 연설을 통해 인권에 대한 연설문을 발표하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우리 말의 힘과 과급력을 믿습니다. 책과 펜을 들읍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한 개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연설을 통해 사람들은 인권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 그리고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긍정적 변화가 찾아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말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전하는 일은 작은 행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 내어 세상에 던진 글자가 많은 사람에게 닿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점묘화를 시작할 때는 작은 점에서 시작하지만 많은 점이 모여 멋진 그림이 탄생한다. 이처럼 침묵하지 않은 작은 외침이 미세한 파동을 일으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으며 보호받는 그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인권 유린이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작은 행동이 큰 행동으로 바뀌고 인권 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모든 이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이 단기간 내에 도래할 것이다.

글 - 노하은 수습기자 dmls17226@sungkyul.ac.kr
사진 - 뉴시스, 탐스타 뉴스 / [참조] 국민일보, YTN

● 스포트라이트

동물에 대한 낯선 생각들

반려동물과 가축 그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우리는 동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작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당연시되며 잊힌 동물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최근 밍크에서 코로나19 돌연변이가 발견돼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어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를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곳곳의 밍크 농장에서 큰 비상이 걸렸고, 그 중 세계 최대 밍크 모피 생산국인 덴마크는 약 1천700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비위생적인 집단 사육이라며 동물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밍크는 모피 생산을 위해 철장에 갇혀 하루를 연명한다. 인간은 도망가는 밍크를 잡아 살아있는 채로 피부를 벗겨내고, 붉은 핏덩이로 변한 밍크를 구석으로 집어던진다. 참혹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모피코트 한 벌에 30마리의 밍크가 희생당한다. 이외에도 광우병 사태,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과 같이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동물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집단 폐사에 내몰린다. 철저히 인간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다.

모든 동물은 온전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동물권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는 동물을 권리의 주체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은 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과 ‘해쳐도 되는 동물’로 구분 짓는다. 반려견과 식용 개, 더 나아가 개고기를 금지하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이중 잣대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비롯되며 동물의 흔적은 음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다시 말해 모피, 전시, 실험 등 광범위하게 동물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까? 보기 좋게 가공된 상품을 보고 학대당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고,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동물과 관련해 총 89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5개만 가결됐다”며 “통과된 법안 중 동물을 착취하는 산업을 규제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권 감수성이 부족한 사회를 여실히 드러낸다. 동물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은 대중의 분노로 그치지 않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결국 동물 복지는 지속 가능한 환경,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비위생적인 사육 시스템에서 발병한 전염 바이러스처럼 착취의 대가는 우리의 몫이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친환경 소재, 동물대체시험법 등 대체방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편의’일 뿐인 문제가 동물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가는지 직시해야 할 때다.

글 - 서효정 기자 hj00119@sungkyul.ac.kr
사진 - 한겨레
[참조] 한국일보, 프레시안

2021학년도 총선거 온라인으로 실시

#아쉬웠던 2021학년도 총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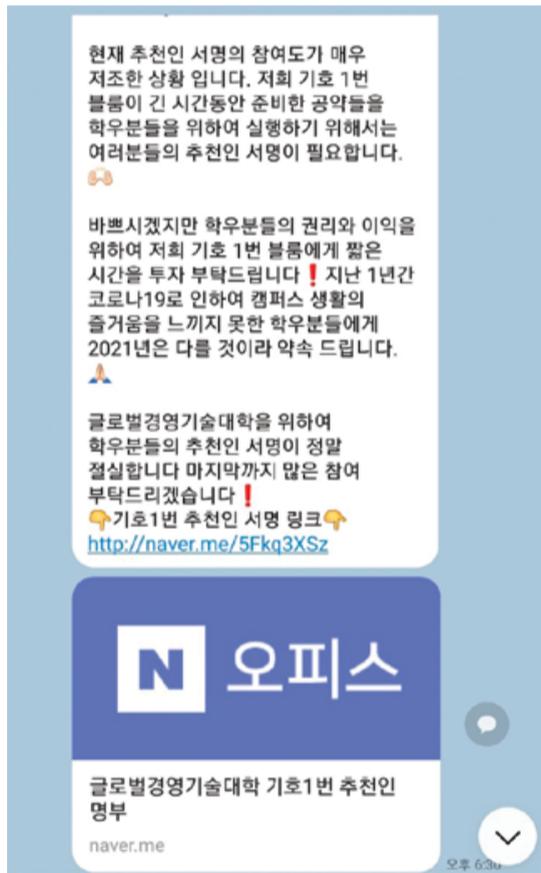


△온라인 투표 시스템

총선거 유세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던 작년과 달리, 이번 총학생회 및 6개 단과대학 학생회와 10개의 학부(과) 학생회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투표는 11월 24(화)부터 26일(목)까지 사흘 동안 K-voting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선거 기간 동안 변수로 작용했다. 먼저 총학생회 후보자들이 추천인 명단을 다 채우지 못해 내년 3월 보궐선거로 넘어간 점에서 온라인 선거 유세의 한계를 보여줬다.

사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추천인 수를 800명에서 600명으로 낮췄지만 이마저 채우지 못하며 애를 먹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투표율 저하를 예상했지만, 정작 본 투표율은 지난해 2,640명(56.2%) 대비 11.7%나 높은 2,973명(6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직접 투표장으로 가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투표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거 유세의 어려움과 지속된 알림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으며 온라인 선거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투표 결과 6개 단과대학의 경우 글로벌경영 기술대학 기호 2번 <정-김성국(경영 16), 부-김유진(산경 19)> '새로운 시작을 우리와 함께 Be:us'가 투표율 64.4%에 찬성 502표로 당선, IT공과대학 기호 1번 <정-이지수(미소 18), 부-유지민(정보 18)> '네 마음 모아, 우리 언제나 Four:ever'가 투표율 71.6%에 찬성 593표로 당선, 사회과학대학 기호1번 <정-이승재(사복 16), 부- 임민정(행정 18)> '너와 함께 소(蘇)통과 유(紐)대 So, you'가 투표율 65.8%에 찬성 501표로 당선, 예술대학 기호 1번 <정-황서윤(음악 19), 부-이채원(뷰티 18)> '예술을 사랑하는 사랑꾼 A Romantist' 가 투표율 63%에 찬성 337표로 당선, 신학대학 기호 1번 <정-김영서(신학 18), 부-강하영(신학 18)>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행'이 투표율 73.1%에 찬성 240표로 당선, 사범대학 기호 1번 <정-오용환(체교 16), 부-이주연(유교 18)> '그대 가는 길, 꽃을 피워줄 Blossom'이 투표율 80.3%에 263표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온라인 선거 유세

사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20학년 학우들의 경우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한 채 2학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학생회들이 기존에 계획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해 소규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21학년도 학생회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우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내년 3월 보궐선거 전까지 총학생회의 부재는 학우들이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다. 학우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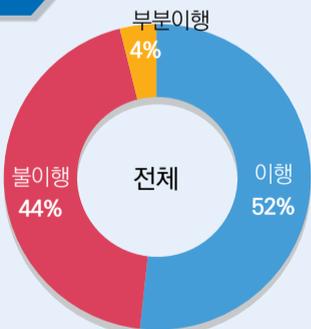
△온라인 투표 실시간 집계 시스템

#제36대 We:Higher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률은?

총 23개의 공약들 중 총학생회가 이행한 공약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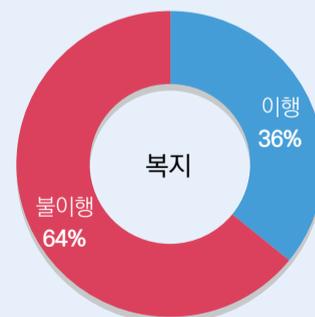


총학생회장 김한도(산경 14) 학우(왼쪽)
부총학생회장 이동훈(행정 16) 학우



» 전체 - 이행 52%, 불이행 44%, 부분이행 4%
올 한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학생회는 높은 이행률을 보여줬다. 총 23개의 공약 중 12개의 공약을 이행했으며, 부분적으로 이행한 공약 1개와 10개의 불이행 공약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이행한 공약만을 작성했다.



» 복지 - 이행 36% / 불이행 64%

- ① 성적향상 특별 장학금 지급
면학 장학금 이외에 We:Higher 총학생회만의 성적 향상 장학금 제도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 ② 분실물 센터 페이지 개설
SNS상의 분실물 페이지를 개설해 조금이라도 쉽고 빠르게 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 ③ 졸업식 포토존 개설 및 방학 중 총학생회 지킴이 시행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2020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포토존을 개설해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방학 중에도 학우들이 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총학생회 지킴이를 시행했다.

제 36대 김환도 총학생회장 인터뷰

2020년의 끝을 향해 달리다 어느덧 36대 We:Higher 총학생회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번 기획면에서는 총학생회 임기를 마치며 한 해 동안 학교를 위해 수고한 총학생회장 김환도(산경 14) 학우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1.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아쉬운 점은 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계획한 것들이 많아 학우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사를 제공해 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과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등록금 환급의 금액 책정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2. 공약 이행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50% 정도 이행한 것 같습니다.

3.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총학생회 공개모집 공약과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약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총학생회 공개모집 공약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We:Higher 총학생회가 처음으로 실행해 공약을 지켰다는 점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약에 경우, 진행되기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모든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이 완벽히 설치돼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기억에 납니다.

4. 다음 총학생회가 이어받아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먼저 계획한 사업들이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인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중 여성용품 개선 사업은 다음 총학생회가 꼭 이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약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오프라인 위주로 계획함에 있어 이행률이 다소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에 공약 이행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다음 총학생회는 비대면 상황에 대비하고 학우들에게 이행을 을 공표해 신뢰받는 총학생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일이나, 더 했다면 좋았을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만족스러운 환급 금액은 아니었지만 등록금 환급을 이뤄냈다는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와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진행됐던 일인 만큼 모든 학우들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나름대로 많은 금액을 받아 학우들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학교 재정상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15만원이 최대한의 금액으로 책정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6. 학교와의 소통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보통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학교와의 소통은 더욱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등록금 환급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수없이 간담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많았지만, 학생지원과나 다른 인사과와는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확답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진행 정도는 보통이라 생각합니다.

7. 안타깝게도 이번엔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된 추천인 명부 작성에서 기존 인원수를 8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참여가 저조할 거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입후보자가 학우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채 명부 작성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총학생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학우들의 소통 창고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으로서 많이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특히 총학생회나 단대 학생회가 사라질 경우 학우분들이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번 3월에 치러질 보궐 선거에서는 학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 내년 3월 보궐선거까지 총학생회의 임무를 맡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학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1년 동안 총학생회장으로 지내오면서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권리와 입장을 학교에 강력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돼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등록금 간담회 심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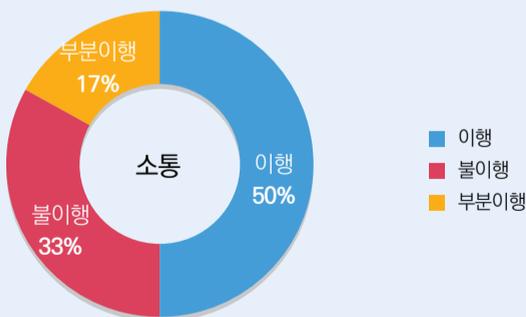
은 2020년 2학기 등록금 환급과 내년 1학기 학사 수업운영 계획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37대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과 2번의 공약을 토대로 겨울방학 동안 학교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9. 총학생회 출마 때 초심과 그 마음이 임기를 마치면서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할 때의 초심은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일도 많고 아쉬웠던 마음도 크지만, 처음 학우들을 먼저 생각하자는 마음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며 지지해 주고 비판해 준 모든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 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고,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기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가 학우분들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학우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년에 있을 보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소통 - 이행 50%/ 불이행 33%/ 부분이행 17%

① 총학생회 인원 공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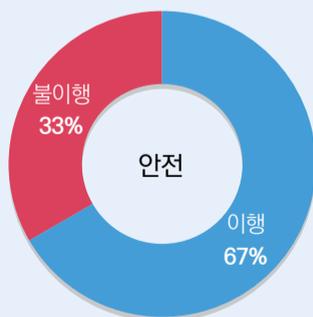
총학생회 집부를 공개 모집해 더 넓은 시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일반 학우도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열린 총학생회를 만들었다.

② 학우들의 의견 수렴

메신저와 SNS를 활용해 학우들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③ 다양한 제휴업체 선정

학교생활 이외에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와 협의해 폭 넓은 제휴를 맺었다.



» 안전 - 이행 67%/ 불이행 33%

① 화장실 비상벨 설치

주택지 밀집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잦아 위험했던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② 교내 CCTV 점검 및 추가 설치

학우들의 안전 보호와 도난 사고 발생 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해 CCTV를 점검했다.



» 시설 - 이행 67%/ 불이행 33%

① 교내 Wi-Fi 점검

최근 Wi-Fi 제한 구역이었던 기숙사를 시작으로 일부 건물의 점검이 이뤄졌으며, 학우들의 설문을 통해 다양한 곳에 Wi-Fi를 점검하며 교체를 진행했다.

② 교내 공공시설 컴퓨터 정비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job 카페 및 교육용 컴퓨터가 바이러스 노출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웠지만, 컴퓨터 점검을 통해 원활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노력했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김가윤 기자
rt0120@sungkyul.ac.kr
사진 - 학보사 일동,
총학생회 페이스북

공간의 세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뮤지컬 작품이 제한적으로 상연되고 있다. 비대면 유료 공연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매출이 줄어드는 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뮤지컬 시장에 대해 관련 회사인 EMK 김지원 부대표는 “당장 영상화를 통한 수익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예술의 경계에 도전하는 2020 연말과 2021 상반기 뮤지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내한 공연	11/6 ~ 21/1/17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베르사유의 장미	11/13 ~ 2/7	한전아트센터
HOPE: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11/19 ~ 2/7	충무아트센터 연강홀
몬테크리스토	11/21 ~ 3/14	LG아트센터
서편제	12월 ~ 2/2월	사롯데씨어터
웃는 남자	1/9 ~ 3/1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줄리 앤 폴	1/10 ~ 3/22	드림아트센터 1관
마리 퀴리	2/7 ~ 3/29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설록홀츠: 사라진 아이들	2/15 ~ 4/19	광림아트센터 BBCH홀
은밀하게 위대하게 - THE LAST	2/15 ~ 2/29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위는 상연되는 뮤지컬 중 일부만을 정리해놓은 표다. 인기를 끌어 높아진 수요에 상응하기 위한 재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극의 줄거리가 취향에 맞다면 시간을 내어 한 번쯤 다녀오는 것도 이번 겨울을 문화인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관심이 가는 재연 뮤지컬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마리 퀴리>와 <베르사유의 장미>다. <마리 퀴리>는 라듐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마리 퀴리가 라듐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 고뇌하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이다. 2018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에 선정됐던 작품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귀에 익은 <베르사유의 장미>는 30대 이상에겐 잊히지 않는 추억의 순정 만화인 동명의 일본 만화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으로 ‘명작의 재탄생’ 전략에 성공한 뮤지컬이다.

이어서 위에서 소개한 두 뮤지컬을 상연



▲충무아트센터

하는 ‘공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마리 퀴리>를 상연하는 충무아트센터는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센터이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술 교육·대관서비스·각종 문화 사업 등을 진행한다.



▲한전아트센터

<베르사유의 장미>를 상연하는 한전아트센터는 서울시 서초구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설치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내부에는 ▲박물관 ▲공연장 ▲갤러리 ▲스포츠센터 ▲구내식당 ▲변전소 등이 있다. 박물관과 갤러리 관람료는 무료라고 하니 관심 있는 학우는 둘러보길 추천한다.

글 - 노예림 기자 sis04026@sungkyul.ac.kr

사진 - 충무아트센터, 한전아트센터

[참조] 더프리뷰, 더뮤지컬

라떼는 말이야

날이 추워질 때면 매년 드는 생각이 있다. 아, 곧 수능이구나. 수험생 시절을 떠올리며 쓸쓸한 추억에 절로 젖는 계절이다. 다가오는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다. 관련 소식이 공표되지만 하면 인기 검색어를 장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능’이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기준, 선택 과목, 그에 따른 교육 과정 등에 변화를 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학생이라면 한 번씩 겪었을 ‘수능’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990년대

1993년은 기존의 학력고사 제도가 암기 위주 시험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 탈교과·통합출제 원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도입된 해. 최초의 수능은 200점 만점이었으며 8월과 11월 2회 시행했다.

총점이 처음 바뀐 1996년 시험은 가장 어려웠던 수능으로 손꼽히며 시험 난이도는 해가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게 됐다.

1998년, 문·이과에 따른 과목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제도와 표준점수제가 처음 도입돼 최초의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연도이기도 하다.

2000년대

2000년은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전국 수능 만점자가 66명이나 됐고 380점 이상 고득점자도 3만 5000여 명이 넘었다. 실제 수능 만점자 중 한 명이 서울대학교에 불합격하는 사태가 벌어져 입시에 큰 혼란이 왔다.

2004년부터 각 탐구 영역을 선택해 네 과목씩 선택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등급이 표기되는 방식으로 성적을 제공했다. 선택 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로또 수능’이라 불리기도 했다. 또 시험 당일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발각돼 2005년 이후 시험에서는 모든 전자기기 소지 불가 항목이 생겼다.

2010년대 초반

2010년, 영어 과목 EBS 연계율 70% 정책이 시행된 해이며 모든 수험생의 필수 교재가 됐다. 하지만 교재 수준보다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다수 출제돼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당시 교과부 장관은 각 과목 만점자를 1%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 단락 됐다.

2014년부터 과목별 비교적 쉬운 A형과 그보다 난이도가 높은 B형 중에서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선택형 수능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분별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도입하자마자 영어 과목의 선택형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2010년대 후반

2015년, 이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면 영어 과목 선택형이 사라지면서 골머리를 앓던 선배들을 봤을 것이다. 시험 유형이 작년과 바뀐다는 것이 수험생에게 얼마나 큰 변수인지 알 턱 없던 필자는 그저 학교 시험만 준비하고 있었다.

재수생들은 선택 과목으로 생각해본 적도 없던 한국사를 준비하며 마찬가지로 골머리를 앓았다.

2018년부터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영어 과목 1등급이 4%에서 다섯 배 가량 늘었다. 때문에 영어 과목에서 분별력을 가리던 어려웠으나 학생들의 정확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주입식 아닌 새로운 영어 교육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이후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져 통합 교과과정이 진행되고 수능 또한 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 따라서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가 전면 바뀌고, 2018년에는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바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만큼이나 자주 바뀌는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열아홉 해를 통틀어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을 치르던 초겨울의 기억이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곤 한다. 만약 같은 마음이라면 이 나라의 모든 수험생을 위해 한 번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초겨울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기를, 마냥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기를 말이다.

글 - 노예림 기자 sis04026@sungkyul.ac.kr

구해줘, 맞춤법!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을 때, 심지어 말을 나눌 때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사자성어이다. 간혹 익숙하지 않은 한자로 구성돼 있는 사자성어는 무심코 틀리기도 하는데, 이래서야 ‘구해줘 맞춤법’ 독자로서의 체면이 안 선다. 이번 호에서는 헷갈리는 사자성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성대모사(聖帶模寫) vs 성대묘사(聖帶描寫)

‘제 특기는 성대모사입니다.’

성대모사는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을 말한다. ‘묘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환골탈태(換骨奪胎) vs 환골탈퇴(換骨脫退)

‘개 완전 환골탈태했더라? 몰라보겠던데?’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태를 바꿔 쓴다는 ‘탈태’를 관계를 끊고 물러나는 ‘탈퇴’로 잘못 쓸 수 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사자성어 중 하나니 꼭 눈여겨두자.

고군분투(孤軍奮鬪) vs 고분분투(古墳奮鬪)

‘아, 나 어제 완전 고군분투 했더니까.’

고군분투는 따로 떨어져 도움을 받지 못한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웠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홀로 힘겹게 어떤 일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 무덤의 뜻인 고분(古墳)을 고군(孤軍)과 혼동할 수 있다.

포복절도(抱腹絶倒) vs 포복졸도(抱腹卒倒)

‘포복절도할 일어네. 너무 웃기다.’

포복절도는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가 배를 잡고 넘어질 정도로 몹시 우스움을 뜻한다. ‘절도’는 넘어진다는 뜻이므로 기절한다는 의미의 ‘졸도’와 헷갈리지 않도록, 웃다가 기

절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염치불고(廉恥不顧) vs 염치불구(廉恥不具)

‘염치불고하고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염치불고는 염치나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염치없이 어떤 행동을 행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불구하고’라는 단어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염치없지만’, ‘염치불구하고’ 등의 뜻 자체는 구어체에서 받아들여질 순 있지만 더 이상 사자성어는 아닌 셈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자성어가 있으며 모든 한자를 빠삭하게 알지 않는 한 헷갈리기 십상이다. 나열한 사자성어는 전부 전자가 맞고, 후자는 틀리다. 한자를 분석하고 외우지 않더라도 전자의 ‘사자성어’를 외워 ‘구해줘 맞춤법’의 독자만큼은 위 사자성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

글 - 노예림 기자 sis04026@sungkyul.ac.kr

즐거운 문화생활

wise culture

영화

회사와 맞짱뜨는 용감한 친구들

1995년 을지로에 위치한 삼진그룹 말단 사원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관객들의 지지와 입소문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들을 시간 여행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제목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감독 이종필
출연 고아성, 이솜, 박혜수
개봉 2020. 10. 21

레트로 삼총사 vs 삼진그룹

마케팅부 돌직구 정유나, 생산관리 3부 오지랴 이자영,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 회계부 심보람은 삼진그룹에 함께 입사한 절친이다. 커리어 우먼의 꿈과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 삼진그룹이라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8년 차 그녀들이 하는 일은 커피 타기, 담배 심부름, 구두 닦기와 같은 잔심부름뿐이다. 어느 날 회사에 토익 600점만 넘으면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공고가 붙었고 삼인방은 밤낮 할 것 없이 졸린 눈을 비벼가며 토익 공부에 열중한다. 어느 때와 같이 자영은 잔심부름을 하러 삼진 그룹 소속의 공장에 갔다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입사 동기 유니와 보람과 함께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의 비리를 파헤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도중 비리의 범인이 고위급 간부임을 알게 되고 내부고발자라는 딱

지가 붙게 된다. 과연 일개 말단 사원인 세 사람은 비리를 덮으려는 대기업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영화가 끝나고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991년 구미 낙동강 폐수 유출 사건과 모 기업에서 세계화를 위해 고졸 사원을 대상으로 토익 반을 개설했던 실제 이야기를 결합해 모티브로 삼았다. 이 영화에서는 90년대 대졸자와 고졸자를 유니폼으로 구별하는 등 차별이 만연했던 시대를 보여준다. 현재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90년대에 비해 상황은 나아졌지만, 비정규직 부당 해고와 능력이 아닌 나이 위주의 계급사회 등은 여전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영화에서는 그 당시의 고정관념과 레트로 감성을 잘 나타냈다. 아침체조로 하루를 시작

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크기에 비해 효율은 떨어지는 컴퓨터와 대중화되기 시작한 삐삐, 촌스러운 유니폼과 거리 사람들의 옷 스타일.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90년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영화 속에 잘 녹여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뿐만이 아니라 엔딩 크레딧에서도 레트로 감성의 귀여운 도트 캐릭터들이 출연해 쓸쓸한 재미를 선사한다. 한편으로 영화 속 주인공들의 성격이 너무 착한 나머지 시원한 사이타 같은 한방이 부족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트로트부터 시작해 레트로 감성이 열풍인 요즘 근처 영화관으로 달려가 예매해 보는 것이 어떨까? 복고풍과 재미를 느끼고 싶은 학우들에게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추천한다.

글 - 문정혁 수습기자 mju5251@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영화
 [참조] 네이버 영화

드라마

인간의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최고의 조망과 화려한 형태로 많은 자산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펜트하우스, 그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고 욕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번 즐거운 문화생활에서는 강남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제목 펜트하우스
연출 주동민
주연 이지아, 김소연, 유진, 엄기준 등
편성 SBS (월, 화)

※ 이 글에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초반 내용의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매력적인 등장인물

드라마는 부의 상징 10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서 파티를 벌이는 천서진, 오윤희와의 관계와 사건들을 전개한다. 과거의 오윤희는 학창 시절 전국에서 알아주는 실력과 소프라노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성악을 포기했다. 대학에 자연스레 진학하기 어려워졌고 소개로 만난 고시생 남편은 바람을 피우다 술에 취해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등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때 딸 배로나가 태어났고 그녀는 청아예고에 입학해 성악을 하기를 꿈꾼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 함께 자란 천서진과 오윤희는 청아예술제에서 대결하게 되고 천서진은 권력을 가진 아버지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오윤희를 꺾어 트로피를 손에 넣게 된다. 비리를 눈치챈 오윤희는 천서진과 다름을 벌이다 천서진에게 트로피로 목을 끊혀 자살을 입게 된다. 이 사건이 지나고 드라마는 다시 2개월 후로 돌아가 배로나의 청아예고를 진학을 위해 천서진과 얽히는 내용을 풀어낸다. 이처럼 몰입도가 높은 소재와 캐릭터들의 뛰어난 연기력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펜트하우스는 상류층들의 모습과 입시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SKY 캐슬과 매우 유사하다. 덕분에 방영 첫날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었지만 불법 촬영된 영상으로 협박 및 불륜과 같은 자극적인 묘사에 시청자들은 "아이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을 찌푸리면서 보게 된다."며



부정적인 평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사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성을 높이는 경향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SBS에서는 19세 이상 관람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방영된 내용에서는 소위 금수저들이 폭력과 비리를 저질러도 재력으로 모두 무마되는 장면이 나온다.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켜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오점이 됐다. 그러나 이런 논란 속에서도 드라마 '펜트하우스'

는 예측 불가한 전개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월화 드라마 전체 1위를 달성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는 드라마다", "현실과 닮아있어 몰입하게 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인이 가진 부와 지위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진 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내용을 보여준다. 심지어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짓누르기도 한다. 드라마에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극한 상황으로 표현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유사하다 생각한다. 현실에서도 인터넷 창에 비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부조리가 만연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드라마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악습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러닝타임 90분간 슈팅 스타처럼 톡톡 터지는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학우들에게 이 드라마를 추천한다.

글 - 문정혁 수습기자 mju5251@sungkyul.ac.kr
 사진 - SBS
 [참조] 오마이뉴스

책의 변천사

이 땅이 '조선'이라고 불렸을 때,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올라가 부족생활을 하던 때에도 인간은 '이야기'에 빠져있었다. 영화와 소설, 연극과 시, 광고와 콘텐츠 등 다양한 모습으로 파생돼 '스토리텔링'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책'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자.

1. 두루마리부터 전자책까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은 양면으로 펼쳐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책의 최초 형태는 '두루마리(volumen, scroll)'였다. 기록문헌으로 쓰인 두루마리의 등장은 BC 3000년경으로 추정되며, 이집트를 비롯해 유럽, 고려 시대까지 발견됐다.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 청동, 상아, 나무 따위의 막대에 파피루스나 양피지, 종이 등을 둘둘 만 형태로 제작됐으며, 한쪽 면에는 글을, 한쪽 면에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랬던 책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넘기는 형태의 '장'으로 등장한 것은 1세기 전후다. 이런 책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휴대가 간편하고 양면 페이지로 구성된 지금의 형태로 굳어졌다. 이렇듯 수를 통해 필사본으로 제작되던 책은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인쇄술의 발달로 비로소 대중적 보급이 시작됐다. 그리고 약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책은 '페이지 묶음', 즉 지금의 형태가 유지됐다.

그러나 현재, 불변의 속성으로 여겨지던 책의 모습이 변화했다. 책을 전자기기로 즐기는 디지털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e북, 앱북, 혹은 전자도서 등으로 불리는 전자책이 등장했다. 역설적이게도 '페이지'로 나뉘던 책의 단위는 스크롤을 사용하여 고대 두루마리 형태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준다. 물론 종이책의 '장'을 모사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존재하지만, 이는 독자가 활자의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선택한 모바일 환경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는 '책'이 더 이상 형태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책이 출시되고 난 후 독자들은 종이책에 비해 실용적인 전자책에 흥미를 갖게 됐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책을 항상 휴대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독자의 취향에 맞춰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신간도서를 받 빠르게 읽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전자책으로 독자를 끌어들이었다.

2. 책도 이제는 콘텐츠 구독의 시대?



이처럼 정형화된 책의 형태가 무너진 현재, e북 역시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자책으로써 처음으로 월 정액제를 먼저 선보인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리디북스'와 오프라인 서점의 강자인 교보문고의 '샘(Sam)'까지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실제로 '밀리의 서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00만 명이던 누적 가입자가 올해 8월 250만 명을 넘었으며, 예스24의 전자책 구독서비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나 단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출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책은 무조건 저렴하게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출판에 대한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근심을 표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급격한 미디어 생태계에 발맞춘 전자책 서비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스마트폰으로 웹소설과 웹툰 등 콘텐츠를 보는 시대가 되면서 전자책 서비스가 발달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 말하며 시장에서 전자책과 종이책의 공생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밀리의 서재'는 '종이책 정기구독 서비스'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을 꾀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두 달에 한 권씩 종이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교보문고에서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동시에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트윈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점에서 종이책을 구매하면 리딩북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등 종이책과 전자책을 결합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3. 종이책 vs 전자책

500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했던 책이 디지털화 되면서 전자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제로 학창시절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2013년 MBC 뉴스플러스에서는 실험을 진행하며 위의 가설을 뒷받침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뇌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 집중력을 저하 시킨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 연구팀에서도 전자책으로 쓰인 장문의 글이, 종이책에 비해 이해력을 감소시키고 읽는 속도에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종이책과 전자책에서 실험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스크린을 통해 글자를 읽는 것이 익숙해진 참가자들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크린의 글자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낯선 경험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매체 특성에 따라 독서 피로도나 몰입도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 어디에도 전자책과 종이책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의 뇌가 변화하는 매체에 적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이제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사이에 두고 '나쁘다 좋다'를 따지는 것이 아닌, '취향에 따라 매체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4. 활자를 벗어난 책, 오디오북의 선풍적 영향력!

시대에 맞춰 변화하던 책은 이제 활자를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시장이 등장한 것이다. 오디오북은 과거 라디오의 아날로그 감성과 더불어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오디오 콘텐츠는 공간의 제약이 적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디오북은 말과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의 원초적 형



태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면서도, 기록되고 편집된 책의 형태를 유지한다.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하며 전달력 높은 콘텐츠가 완성됐다. 뿐만 아니라 장르에 알맞은 노래나 효과음, 연기가 더해진 대사 등 콘텐츠 자체의 질이 대폭 향상된 것이다. 오디오북의 종류 또한 소설과 유·아동 서적,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에서 나아가 웹 소설과 웹툰까지도 무궁무진하게 성장 중이다.

오디오북의 성장은 선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작년 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오디오북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의 '배우 100인과 한국 근현대 단편소설 100편 낭독 협업'이 바로 그것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되었던 기존의 오디오 콘텐츠는 자원봉사자에게만 의존해 제작됐고, 전체 출판물의 10%가 채 되지 않는 장르로 협소했다. 하지만 오디오북 시장이 커지고 유료 콘텐츠에 대한 시각장애인이 문턱을 넘을 인터페이스가 갖춰지면서 한정된 장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롭게 책을 즐기게 된 것이다.

종이책과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까지 시대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책의 모습을 알아봤다. 사람들은 전자책이 등장이 종이책을 대체할 거라고 예상했으며, 오디오북을 독서로 간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풍요롭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쏟아지는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할 '책'을 기대해본다.

글 - 김민진 수습기자 zzzzzzzzzin@sungkyul.ac.kr
 사진 - 밀리의 서재, 트렌드 모니터
 [참조] 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설포커스



그것이 알고 싶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위험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이슈들, 제대로 한 번 알아보자.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올해 7월 독일 법원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 조치 및 허위 광고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제소한 독일의 반경쟁 행위 반대 단체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법원이 이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판결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가 다시금 언급됐다. 자율주행 성능을 너무 의존한 나머지 운전대에 손을 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단계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전 세계적 개발 단계는 3~4단계에 머물고 있다. 즉 완전자율주행 수준에 이르는 5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에 테슬라는 2020년 2분기 차량 안전성 보고서를 통해 오토파일럿 기능 차량의 안전함을 알렸다. 오토파일럿이 주행거리 729만 km당 1건의 사고율을 기록하고,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은 약 365만 3000km당 1건의 사고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레벨 3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이 시점, 독일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을까? 국토연구원 김호정 박사와 함께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전문가와의 인터뷰

Q 독일 법원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의 이념 등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제일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우선 무언가에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해 인류는 너그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동차 기술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독일이 그것을 선점하지 못했다는 경쟁심에서 나온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갖는 허위와 과장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는 그 국가의 철학과 문화의식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Q 2020년 2분기 차량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기능 운전 사고율은 729만 km당 1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른 차량에 비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인적요인과 도로환경요인, 차량요인으로 구분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인적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따라서 운전자로 인한 사고에서만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뿐, 다른 차량에 비해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교통전문가가 바라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은 '도로 위의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일 때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반 차량과 혼재된 주행 환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Q 최근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도중 사고가 일어날 시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동으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2022년까지 부분 자율주행 차량을 전격 출시,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 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인데, 최근 정부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6가지를 발표하였고, 6가지 안전기준(▲운전 가능 여부 확인기준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상황별 운전전환 ▲긴급상황 ▲운전 대응 필요시 미반응 ▲시스템 고장 대비)을 지키지 않으면 제조사의 책임으로 귀속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문제는 지금까지 가장 큰 이슈이고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누구의 책임인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운전자, 차량 제조사,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도로관리 주체 사이에서 사고의 원인에 따라 책임을 규정하는 법·제도는 수많은 토론과 경험에 근거하여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 국민 간의 대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Q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안전불감증 방지 혹은 오작동의 위험성 보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대부분이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장애물 등의 사고 감지 시 운전자에게 지속적인 경고음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상용돼 있고, '기술 개발로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한다면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Q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기대 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교통부문에서는 전기차의 발전 및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이동 속도 중심으로 발전해온 모빌리티의 '혁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 꿈꿔온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우주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교통수단 등은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영화 속 가상현실이 실현되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했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관심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김호정 박사의 말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새로 떠오르는 혁명이지만 그 무게만큼의 협의점이 필요할 것이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가 되고 대중화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뒤에 따라오는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여유롭게 도로를 누비는 미래를 그려본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참조] 블로터, 오토헤럴드

이달의 리뷰

여성의 그날을 위해! 생리컵의 모든 것

대부분의 여성이라면 겪는 월경. 신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흘러내리는 피와 냄새 덕에 느껴지는 찝찝함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월경의 '필수템'인 생리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이번 이달의 리뷰에서는 진입장벽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는 생리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리콘 재질의 컵 모양을 하고 있는 생리컵은 질 안에 삽입해 생리혈을 직접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했던 예전과는 달리 ▲한나컵 ▲페미사이클 ▲루나컵 등 크기와 형태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컵을 찾을 수 있다. 맞는 컵을 찾아 구매했다면, 사용할 시 컵을 반으로 접은 후 몸에 힘을 뺀 뒤 삽입하면 된다. 제거할 땐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생리컵 아랫부분을 꼬집듯 잡아 실링을 풀어 꺼낸다. 필자의 경우 아토피가 심해 생리대를 사용할 때마다 피부에 자극이 가 가려움증을 유발해 생리컵 구매를 결심했다. 현재는 용량 32ml의 짧고 뚱뚱한 형태를 지닌 티유클을 사용하고 있다.

생리컵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손꼽아 말하는 장점은 바로 편안함일 것이다. 생리대를 찾을 때 느껴지는 피의 흘러내림과 냄새가 없으며, 갈고 다시 착용하는 과정의 반복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활동하기 훨씬 편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월경 기간임을 잊을 때도 있었다. 필자가 탐폰 대신 생리컵을 선택한 이유는 쓰레기의 양이었다. 탐폰

이 생리대와 같은 소모용이라면 생리컵은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가격의 장점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사용을 권장하는 생리컵은 한 번의 구매를 끝으로 두고두고 이용할 수 있다. 관리 역시 사용 전후로 소독 가능한 용기에 물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주거나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 주기만 하면 돼 간단하다.



하지만 생리컵은 장점이 많은 만큼 진입장벽 역시 높다. 처음 사용했을 때 넣고 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는 필자가 실리콘의 탄성력이 높은 티유클을 사용해 더 어려웠을 부분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초심자들에게는 어려운 방식임이 분명하다. 질 안에 삽입된 생리컵이 방광을

짓눌러 요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갈수록 적응되는 부분이지만 이 또한 초반에는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맞는 컵을 찾는 것도 일이다. 생리컵을 착용한 뒤에도 피가 새거나 크기 혹은 용량이 안 맞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리대는 쓰고 버리면 끝인 반면 생리컵은 간단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6개월 이상을 사용한 결과 아토피 증상이 꽤 완화됐으며, 월경 기간 중 활동의 제약이 훨씬 줄어들었다. 생리컵의 단점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면 금방 베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날의 극복 방법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골든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리대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생리컵을 추천하고 싶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티유클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수습기자 칼럼



정예슬 수습기자

아르바이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폭언, 성희롱, 갑질 등 부당한 일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를 대비해 최근에 출시된 '사원증 녹음기'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사원증 같지만, 뒷면의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는 기기이다. 이 녹음기는 의료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폭언 및 욕설 등에 노출되기 쉬운 근무환경을 보다 쾌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개발됐다.

이러한 기기의 출시에 대해 한 간호사는 "실제로 환자가 의료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많으며, 나는 폭행까지 당해봤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사원증 녹음기는 실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주변의 간호사 지인들

에게도 이를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한다는 점에서 "녹음은 불법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과, 다수가 참여한 대화 중 한 사람의 녹음은 모두 합법이라고 한다.

사실 본인 또한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중년의 남성에게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으며,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오가는 상황에 빠져 난처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고,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증거도 확보할 수 없었다. 이 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저 불안 속에서 근무해야만 할 것이다. 본래 이 기기는 의료진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단언한다. 폭언, 욕설이 오가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

을 때, 혹은 손님의 시선을 피해 녹음을 해야 할 때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의료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아르바이트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장 내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감정 노동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노동과 서비스 안에 폭언, 욕설 등을 듣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자 부모이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며 또 존중해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미소를 짓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날을 기다리며 글을 마친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체험 에세이

어른 체험

오전 6시,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아 어둑어둑한데 눈치 없는 핸드폰 알람 소리는 끈질기게 귓가를 괴롭힌다. 일어나기 싫다는 철없는 투정을 몇 번이고 해보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겨우 눈을 뜨며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한다.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사무실로 가 어김없이 컴퓨터 전원을 켜다. 교내 근로 장학생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금의 방식은 늘 이러했다.

대학생이 되면 한 번쯤은 꼭 경험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아르바이트다. 학원, 카페, 서빙, 편의점, 피시방... 다양한 업종 중에 대학생의 로망, 이른바 '꿀알바'를 꼽자면 학원 보조나 관공서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행정 사무직이 아닐까. 대개 몸을 쓰는 일보다는 편하게 앉아서 문서 작업만 처리하면 되고, 업무 강도도 그리 높지 않다는 인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교내 근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행운처럼 찾아왔고 필자는 이를 놓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출근 첫날,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꿀알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동안 집 근처에서 만 알바를 해왔던 탓에 장거리 출퇴근길이 얼마나 고된지를 간과한 것이다. 아침 7시에 지하철을 타도 앉을 자리 하나 없이 뻘뻘하게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며, 바빠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왔는지, 피부로 와 닿는 부끄러움의 무게와 졸음의 압박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관료제적 문서주의 위주로 돌아가는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고작 하루에 6시간 남짓 앉아있는 주제에 통증을 수반한 허리는 말썽을 피우기 일쑤였고, 모니터를 오래 바라본 눈은 금세 건조해졌다. 일처리가 더딘 와중에 해야 할 일이 또 쌓이면 어마어마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에 지레 겁을 먹기도 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면 이런 기분일까, 은연중에 어른이 되기 싫다는 생각을 반복하며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지금 떠맡고 있는 업무 강도는 실제 정규직 사원들의 업무 강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교내 근로는 '어른 체험'의 기본적인 튜토리얼일 뿐인데도 게임 오버의 수몰지구에 풍덩 빠져버린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스스로가 게으름에 점철된 족속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필자는 언제까지고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의 간극에 갇혀 있을 터다. 이 글은 이미 에세이라기보다는 자기반성과 부끄러움으로 범벅된 회고록에 가깝지만, 내일은 조금이라도 성숙한 어른에 가까워지길 기대하며 글을 마치고 눈을 감는다. 기상시간까지 4시간 남짓 남은 시점이다.

글 - 이효정 기자 lhj0213@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책임감이라는 그늘

사소한 선택으로 시작했던 학보사 생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기사 하나 겨우 작성했던 수습기자 시절을 지나 정기자 그리고 편집장까지 3년간의 학보사 생활은 나에게 빼놓을 수 없는 값진 시간을 남겨줬다. 그러나 지난 2년보다 이번 1년의 시간이 특히 길게만 느껴졌다.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 탓에 욕심냈던 편집장이라는 직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코로나라는 변수는 위기로 다가왔다. 수습기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최종 마감 회의까지 어느 하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한 호의 신문을 발행하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산더미처럼 많았고, 제대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이를 원망하기도 했었다. 내가 원해서 맡았던 직책이었지만 역량보다 무거웠던 감투의 무게는 짐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았다.

그렇게 나는 책임감이라는 그늘 아래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지면을 다 맡아 작성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애들 시키지 왜 혼자 다 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편집장이라는 자리 하나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6면의 학보에 내 이름만 10번 넘게 나올 때마다 기자들에게 실망 아닌 실망을 하기도 했었다. 말하지 않아도 보도를 찾아 취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6면이 넘는 지면을 작성하는 내 노고를 알아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건 내 바람일 뿐이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취재를 한 번도 나가지 않거나, 수정 전 기사를 웹하드에 잘못 올리는 등 학보사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며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사실 편집장 선배들의 마지막 글에서는 항상 기자들에 대한 칭찬만 가득했기에, 어찌 보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그러나 12명의 기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나를 탓하려 한다. 항상 부족한 편집장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자신의 몫을 다해준 5명의 기자들(이효정, 서효정, 노예림, 김가운, 김은서)과, 7명의 수습기자들(김민진, 정우민, 노하은, 문정혁, 문예민, 임종엽, 정예슬)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눈부신 발전을 보여준 이들 덕분에 1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사실 편집장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해 여러 번 기사를 다시 쓰라 할 때마다 미안했지만 이 모든 게 그대들을 위해 그랬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한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달고 나오는 기사에 성결대학보사로서의 자부심과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작성해 줬으면 한다.

글 - 김정원 편집장 kimjw903@sungkyul.ac.kr

주간사설

전쟁과도 같았던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임태균 교수
동아시아물류학부

어느덧 2020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인류의 삶을 관통하는 공통 사건이요 공통 화제는 다름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일 것이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대재난 상황으로 인해 큰 혼란을 치루고 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s)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전 세계 총 감염자수는 어느덧 6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는 150만 명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흡사 전시체제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만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예언

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미국 TED(TED) 토크 석상에서 전염병 대유행을 경고하며,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강조하며 “전염병 확산은 전시상황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라고도 역설했다. 실제로 21세기 들어서서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수많은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으며 변종이 출현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적 현실과 미묘하게 겹치는 소설이 있다. 바로 1947년에 발표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이다. 『페스트』는 1940년대 당시 프랑스의 식민도시였던 알제리의 해안 소도시 오랑에 몰아닥친 페스트로 폐허가 되고 고립된 도시 안에서 암흑의 시기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리고 있다. 쥐 폐의 죽음에 이어 많

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당국은 오랑시를 폐쇄한다. 카뮈는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초래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등장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방화와 약탈, 거짓 기사와 예언과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페스트와 싸우며 난관을 헤쳐 나가는 랑베르와 같은 인물을 통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케 한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페스트와 싸운 의사 리외의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도시에 다시 쥐들이 나타나며 페스트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리면서 소설은 마무리된다. 이처럼 시대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일반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 한줄기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왔다. 12월 2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임상 시험을 거쳐 면역 효과가 검증된 백신이 국가의 승인을 받은 첫 사례로 코로나19 종식을 알리는 청신호라 할 수 있다. 물론 백신의 부작용 위험성이 염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가 과연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리외와 같은 진정한 영웅, 의료진들의 수고가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 역시 『페스트』 속에 그려진 모순 투성이의 부조리로 채워진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다양한 부조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교수칼럼

융·복합시대에서 경쟁력 확보



김선제 교수
경영학과

경제사에서 볼 때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1차 산업혁명은 동력의 사용으로 인해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를 주었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사용 및 대량생산으로 인해 공업구조고도화를 가져왔다. 제3차 산업혁명은 PC의 발달로 전자시대로 변화시켰고,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산업의 발달로 고도정보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화, 네트워크화, 인공지능화를 합한 개념으로 경제구조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한다. 기술과 산업에서 융복합화를 가져와 산업간 경계 파괴 및 신산업이 등장하고, 네트워크화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공유경제를 활용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며, 인공지능화는 AI를 기반으로 인간의 지능이나 판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 경제사회를 지배하는 융·복합시대에서 개인들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 근로자간 불평등과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인간은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작업 대신에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저숙련 직종이나 단순기술직, 엔지니어, 회계사 등 직업군은 AI 위협에 노출되는 반면에 고역량 직업군은 오히려 혜택을 보면서 고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TV방송국에서 유명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뉴스를 진행하는 AI 아나운서가 등장했고, 스포츠 기사를 작성하는 AI기자도 이미 등장했다. 직장에서 매일 똑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AI에 쉽게 대체될 가능성이 크지만, 학력이나 전공과 상

관없이 매번 하는 일이 다르다면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AI시대에서는 누구도 꺾여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다가온다. 어느 한 분야만 집중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나 전혀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은 다재다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인재가 AI시대를 이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면서 아날로그의 따뜻한 감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산업추세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재학할 때 충분한 역량을 쌓고 나서 졸업해야 한다. 졸업 후에 직장에 근무하면서 고역량을 쌓을 수 있지만 직장업무 수행하면서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재학하면서 전공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역량을 차근차근 쌓

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사회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근본적인 요인은 경쟁과 사유 재산제도 인정이다. 경쟁은 개인 간 경쟁, 기업 간 경쟁, 국가 간 경쟁촉발이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일본 전자회사들과 기술경쟁에서 이겼고, 이러한 원동력이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면 개인이나 기업, 국가는 발전하게 되면서 부의 축적을 가져온다. 성결인들이 융·복합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며, 아울러 이종 분야의 학문 연마도 추가로 필요하다. 문과생들은 AI, IOT,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도에 대해, 이과생들은 경제경영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심혈을 기울여 공부해야 한다. 학창시절에 창의성을 갖춘 다재다능한 인재가 될 수 있게 연마하기를 바란다.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독자 참여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오	컵	지	베	험	장
바	바	생	성	오	인
책	사	의	미	마	이
적	퀴	르	조	회	다
사	든	디	료	리	유
보	리	복	리	오	픽

문제의 답을 모두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각 문제는 이번호 기사의 관련 용어를 가리킵니다.

- 이번 '전지적 학과 시점'에서는 ○○○○학과에 대해 다뤘다.
- 은 여학 자격증의 하나로 ACTFL에서 외국어 말하기에 대한 본질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 검사는 인성, 적성 검사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될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인 ○○○의 승리로 돌아갔다.
- 바이든의 당선으로 가장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은 ○○○○이다.
- '공간의 세계'에서는 재연 뮤지컬 작품인 <○○ ○○>와 <○○○○의 ○○>에 대해서 소개했다.
- 의 최소 형태는 두루마리였다.
-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북이 등장했다.
- 이달의 리뷰에서는 ○○○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응모기간 : 12월 18일(금)까지
응모방법 : 학보사(학생회관 109호)로 제출해주세요

<정답란>

성결대학교보사에서는 학우들의 귀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퍼즐과 함께 학우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 다음 호에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만약 다음 호부터 새로운 코너를 기획한다면 생겼으면 하는 코너가 무엇인가요?
- 학보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부(과) : 연락처: 이름:

거침없는 청년정신 / 도전하는 기자정신 / 잘나가는 학보사

지난 호 정답

이번 겨울방학은 영어와 **쌤(SSUM)**타보자!!

타는

쌤(SSUM) V 영어

Sungkyul Students' Unique Meeting with English

영어랑 쌤(SSUM)타면서 공부하는 유니크한 영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방학기간 원어민 교수가 진행하는 English Essay Writing 수업과 English Speaking 수업에 참여해서 우수상금도 받고, 영어 실력도 쑥쑥~

프로그램 일정

STEP.01



모집 : 12월 18일(금) 까지

STEP.02



오리엔테이션 : 12월 23일(수)

STEP.03



영문 스크립트 초안 작성 및 제출 : 12월 31일(목)

STEP.04



English Essay Writing 수업 : 1월 4(월)~8일(금)
English Essay Writing 학습보고서 제출마감 : 1월 10일(일)

STEP.05



English Speaking 수업 : 1월 11(월)~15일(금)
English Speaking 학습보고서 제출마감 : 1월 17일(일)

STEP.06



English Speaking 동영상 파일 제출 : 1월 19일(화)

STEP.07



English Speaking Contest 및 심사 : 1월 20(수)~22일(금)

STEP.08



우수 학생 발표 및 상금 지급 : 1월 말

프로그램 소개

▫ English (Essay) Writing 수업
방학기간 1주일(5일) 동안 원어민교수가 운영하는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이다.

영어 글쓰기 수업과 병행하여 참여 학생들은 영어에 세이 스크립트를 스스로 작문해 볼 수 있으며 배정된 원어민교수로부터 영어작문에서의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교정 받을 수 있다.

▫ English Speaking 수업
방학기간 1주일(5일) 동안 원어민교수가 운영하는 English Speaking 프로그램이다.
English (Essay) Writing 수업 바로 다음 주에 운영되며 English (Essay) Writing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일한 학생들이 English Speaking 수업에 참가하게 된다. 학생들은 본인이 작성한 English Essay를 영어로 말할 때 원어민 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교정 받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학습 보고서 : 30점 (15점 X 2회)
원어민교수 평가 : 30점 (Writing, Speaking 각 15점)
English Speaking Contest : 40점 (English Script와 Speaking 동영상)

시상 금액

대상 : 500,000원(1명) 우수상 : 300,000원(4명)
최우수상 : 400,000원(3명) 장려상 : 200,000원(5명)